

음식점 매출 떨어지고 외식물가는 오르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영향 집밥수요 늘고 식재료 유통망 상대적으로 부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남지역 음식점 매출은 크게 떨어지고 주요 외식물가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네이버 데이터랩이 비씨카드 결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음식점 매출은 전년보다 광주 13.1%, 전남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1월과 비교해서는 광주 11.7%, 전남 10.7% 줄었다.

업종별로 매출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식은 광주 19.2%, 전남 32.9% 줄었고, 이 가운데 회식·모임이 잦은 고기요리 분야는 광주 66.7%, 전남 7.1% 감소했다.

중식 분야에서는 광주지역 매출이 10.5% 감소한 반면 전남은 7.1% 매출이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전남지역을 포함한 대다수 지역의 음식점 매출이 곤두박질친 가운데 전남지역 8개 주요 외식물가는 모두 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집밥 수요가 늘고 식재료 유통망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탓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물가를 보면 지난 4월 전남지역 주요 외식물가 8개의 평균 상승률(전년비)은 1.7%로 나타났다.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인 음식은 지난해에 비해 2.7% 오른 김치찌개 백반과 김밥이었다.

전남 김치찌개 백반 1인분 가격은 지난해 6222원에서 6389원으로 167원 올랐

4월 전남지역 주요 외식물가

품목	2019년	2020년	상승률
냉면	7333	7444	1.5
비빔밥	6944	7111	2.4
김치찌개백반	6222	6389	2.7
삼겹살	1만4852	1만5000	1
자장면	5278	5333	1
삼계탕	1만3667	1만3778	0.8
칼국수	7000	7111	1.6
김밥(1줄)	2056	2111	2.7

(1인분 기준, 단위:원·%)

다. 김밥 1줄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55원 오른 2111원으로 조사됐다.

품목별 상승률을 보면 비빔밥 2.4% (6944원→7111원), 칼국수 1.6% (7000원→7111원), 냉면 1.5% (7333원→7444원), 자장면 1% (5278원→5333

원), 삼겹살(환산후 200g) 1%(1만4852원→1만5000원)→삼계탕 0.8%(1만3667원→1만3778원) 순으로 올랐다.

반면 광주지역은 8개 품목 가운데 삼겹살과 김밥 가격만 오르고 나머지는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삼겹살 가격은 지난해 4월 1만 1911원에서 1만2556원으로 5.4%(645원) 인상됐다. 김밥 1줄 가격은 2360원에서 2400원으로 40원(1.7%) 올랐다.

한편 지역에서 전국 평균 물가보다 높은 품목을 보면 광주지역은 삼계탕(686원), 김치찌개 백반(441원), 비빔밥(282원), 칼국수(247원), 자장면(211원), 김밥(72원)이 비쌌다.

전남지역은 삼겹살(1014원), 칼국수(358원), 삼계탕(264원), 자장면(144원) 등이 평균보다 비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88.92 (+4.63)
- ↓ 금리(국고채 3년) 0.861 (-0.041)
- ↑ 코스닥 753.82 (+0.78)
- ↓ 환율(USD) 1197.70 (-7.10)

HDC현산 “아시아나 인수 조건 원점 재검토”

채권단에 재협의 요구 공문 “인수 의지엔 변함 없다” 강조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에 요구했다.

‘인수 포기설’ 등 각종 추측성 보도에도 한동안 침묵하던 현산이 재협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 물밑 협상을 통해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산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상황을 재점검하고 인수조건을 재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산은 먼저 ‘인수 포기설’ 등 세간의 추측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은 등 계약 당사자들 간의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인수가 성공적으로 종결될지 희망한다”며 채권단 역할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현산은 이날 채권단에 구체적인 재협상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장문의 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황이 인수 체결 이후 크게 악화했다는 점을 강조해 인수 가격 낮추기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산은 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 사이 아시아나항공 부채가 무려 4조5000억원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작년 6월 말 대비 1만6126% 급증하는 등 재무 상태가 악화했음을 강조했다. 1분기 말 현재 자본총계도 작년 6월 말보다 1조772억원 감소해 자본잠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당기순손실도 모두 8000억원 이상 확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산은 “산은에 이번 공문을 통해 직접적인 논의가 가능해진 데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인 산은과의 대승적 차원의 실질적인 논의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수 계약의 주체는 금호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산은 등 채권단과 물밑 협상을 통해 인수 조건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연합뉴스



“입욕제로 코로나 스트레스 풀어요” 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8층 리쉬 매장에서 다양한 향과 색깔의 입욕제를 선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이른 무더위로 인한 피로감을 풀기 위해 입욕제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 2만건 조정 신청 31% ‘개인간 다툼’

전자상거래(이커머스)가 늘고 개인 간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전자거래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는 총 2만845건의 상담·조정 신청을 접수해 건수가 2018년(1만8770건)보다 11% 증가했다. 지난해 상담은 1만9140건, 조정 신청은 1705건이었다. 상담이 전년 대비 2214건 늘었고, 조정 신청은 139건 줄었다.

조정 신청 유형을 보면 사업자와 개인 간(B2C)의 분쟁 조정이 63.3%(1080건)로 가장 많았다. 개인 간(C2C) 조정 신청은 31.4%(535건)이었다.

개인 간 조정 신청은 2017년 620건, 2018년 649건, 지난해 535건으로 매년 600건 안팎으로 들어오고 있다.

진흥원은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는데,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정 신청은 의류·신발(35.2%) 관련이 가장 많았고 컴퓨터·가전(21.3%), 잡화(11.9%)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진흥원은 B2C와 C2C뿐 아니라 기업 간(B2B), 정부와 기업 간(G2B) 등 모든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지원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광호(왼쪽) 광주본부세관장과 정미경 월곡시장 상인회장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본부세관 제공>

광주본부세관-월곡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자매결연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9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시장상인회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본부세관은 주말 자녀와 함께 ‘전통시장 체험의 날’을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직원 식자재 공동구매, 명절 세수용품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물품

을 우선적으로 월곡시장을 통해 구매할 예정이다. 또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와 유통이력 신고제도 등 규정을 미처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월곡시장은 1998년 8월 개점 이후 현재 44개 점포에서 수산물, 청과, 방앗간을 비롯해 다양한 먹거리 품목을 취급·판매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주은행,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지난해 74명·올해 89명 참여 ... 임금·승진 불이익 없어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올해로 3년째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10시 출근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출근시간보다 늦춰진 오전 10시 출근을 독려한다.

지난해에는 직원 74명이 ‘10시 출근제’에 동참했으며 올해는 89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개학날인 지난 달 27일부터 한 달 동안 ‘10시 출근제’를 이용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10시 출근제 참가자들의 근

로시간은 줄지만 임금과 승진 부문에서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수 광주은행 인사지원부장은 “육아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고 기업·사회에서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며 “이와 같은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일과 가정에서 진정된 워라밸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